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착공

순창 인계면 가목마을에 국비 3억5000만원 포함 총 5억원 투입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인계면 가목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이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7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국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회관 시설 개선과 휴게 센터 조성, 산책로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989년에 준공돼 건물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던 마을회관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와 주방시설 개선, 주민들이 모여 식사하는 공동공간도 활용도를 높여 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마을입구에 있는 모정 주변도 화단 식재를 비롯해 작은 공원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편안히 산책도 할 수 있게 환경도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해 어르신의 건강도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마을 입구에는 산책로를 식재해 봄이면 화려한 꽃들로 물들 마을 경관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마을의 수호신처럼 자리 잡고 있는 느티나무 주변도 부지를 정리하고 원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인계면 가목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이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7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터를 조성해 농번기철 마을 주민들이 포근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여기에 향토자원인 마을샘터 및 회나무를 복원해 과거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공간 구성도 추진한다.

기반시설 구축외에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건강하고 즐거운 마을 조성을 위해 건강체조교실과 노래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화합을 모색한다. 또 산진지 견학과 리더교육을 통해 향후 마을 발전의 비전도 구상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인계면 가목마을은 당산나무, 개고개 설화 등 자연 자원과 향토문화자원이 다수 남아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라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간 화합과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청년혁신가 창업지원 사업 기대감

임실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적극 지원

임실군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혁신가 창업지원 사업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민선 7기 심 민 군수의 각별한 관심 속에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공고를 통해 3명을 선정했다.

이후 전북도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씽킹 창의혁신교육을 지난 4월 1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실시했다.

이 중 임실군 추천자는 3명중 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수료자 중 1명은 우수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2019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청년로컬 소셜벤처 사업은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지역 고유문화 자산 등을 발굴·활용 용·복합하여 지역의 일상문화, 라이프스타일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순수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북 출신 청년혁신가 51팀 83명중 임실읍이 고향인 심재민 청년대표가 최종 심사서 우수팀(2등)으로 선정됐다.

심 대표는 '여기보개 치즈'라는 반려견 무염치즈 간식 아이템으로 치즈마을에서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연구·개발한 계획을 알선했다.

최종심사에서 그는 임실군 N치즈축제와 연계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좋은 아이템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앞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청년창업 성공 모델을 만들어 임실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민 군수는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둔 청년대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공약사업인 만큼 미래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지원

남원시 여성가족과는 지난 28일 어린이집 청년전문조리사 양성지원사업 참여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어린이집 청년전문조리사 양성지원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는 요리자격증 취득비용 및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설명 ▲위생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간식 만들기 ▲만찬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권도시 구현 적극 나서

남원시는 27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에서는 해마다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현장 중심에 있는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이 인권 친화적 행정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공직 내부적으로 인권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급을 구분 진행했다.

앞으로도 간부급 공무원 중심의 인권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 인권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작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7월 1일 시청광장서 양파·감자·파프리카 소비촉진 나서

남원시는 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볼 재배한 농작물의 풍작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기로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 시청광장에서 남원 주요농작물인 양파·감자·파프리카 팔아주기 및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남원농산물 팔아주기 행사장에서 양파·감자·파프리카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양파 1kg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하고, 서울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농산물을 손쉽게 보낼 수 있도록 파프리카, 감자를 주문을 받아 농협에서 택배로 보내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남원시와 남원시조합공사 사업법인은 지난 24일 양파 96톤을 대만에 수출해 양파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에 용기를 주었으며, 7월말까지 양파 2,000톤을 대만과 미국에 수출하고, 국내 대형유통매장과 도매시장거래처에도 양파를 공급하기로 했다.

감자도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어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남원에서는 500여 농가가 3,600여톤을 생산해 부산공판장을 비롯한 대도시 유통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남원감자는 운봉·인월·아영 고랭지에서 생산한 씨감자를 종서로 재배해 맛이 좋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파프리카는 운봉 고랭지에서 생산해 양재동 하나로마트, 서원유통, 농협 안성물류센터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일본으로 1,000여톤 35억원 어치를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강조 원예산업과장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농가에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드림스타트 아동 구강검진

22명 대상 조기관리 및 치료비 500만원 지원

순창군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치아검진 및 치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 22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료치료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관내에 위치한 제일치과 의원과 지난 2018년 업무협약을 맺고 군이 치료비의 70%, 치과위원이 30%를 부담한다. 이로써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무료 진료료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들 대부분이 만 7~12세 아이들로 평소 치아관리가 쉽지 않아 치아가 쉽게 썩다보니 진료비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대상 가구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구강위생 관리교육부터 구강검진,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져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가구내 치료 비용감소로 경제적 혜택도 이어져 아이와 부모 모두 크게 만족하고 있다.

대상 아동으로 선정된 한 어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치치료를 제때 해주지 못해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함 마음이었다"며, "치료 후 가정에서도 지속적 치아관리를 통해 아이들 건강에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건강한 치아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순창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완료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원)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 등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주요 심사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추진해 예산이 아물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가용화 하고, 순세계 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